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7. 7

주간 달러/원 동향(6/30~7/4)및 전망

서울외환-USDSP-체결 <일> 2025/07/07 종:1,364.90 ▲2.60 +0.19% 시:1,362.70 고:1,365.60 저:1,361.70



주간 달러/원 동향

-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후임자 선임 가능성을 통한 금리 인하 압박 영향 속 반기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 확대로 1,350원까지 하락 출발. 이어 수급 측면의 결제 수요가 하단을 탄탄히 지지하는 가운데 1,350원대 중반으로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전일 미 구인 건수 및 제조업 PMI 등의 지표 호조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완화된 가운데 미 관세 리스크 부각이 위험 회피에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 증시 순매도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 추세 유지된 국면
- 후반 들어, 미 민간ADP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과 달리 감소를 보였지만, 다음일 예정된 비농업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 반영하며 소폭 상승 지속 후, 이어 주 후반, 미 6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반영하면서 상승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고용지표가 타이트함을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 지속 방향성이 다소 유지될 전망. 이는 특히, 경우에 따라 방향성이 모호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연준 금리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연준 매파 성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달러 지지 요인으로 예상
- 한편, 다음주로 다가온 관세 유예 시한은 일본과 같이 예상보다 크게 관세 직격탄을 받게 될 경우 환율 변동성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역방향은 원화에 우호적일 듯. 하지만 현 상황에서 환율 방향성을 모호하게 함으로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 다만, '환율 억제' 가시적일 경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61	1,367.2	1,347.1	1,362.3	+4.9

예상거래범위

1,355원 ~ 1,375원

유로·엔화 동향 (6/30~7/4)



유로화 동향

- 주초,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연준 금리인하 압박 속 국내금리 하락 영향과 맞물린 달러인덱스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안정적 흐름 속 저금리 인하 영향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유로화 강세 출발. 이어 미 노동부 구인구직보고서에 의한 구인 건수 증가 속 6월 제조업 PMI가 49.0으로 시장 전망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이며 강세 전환했으나, 유로화의 추세적 강세는 이어진 양상
- 중반 들어, 미국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 3.3만 감소한 것으로 나온 가운데 달러화의 순간 약세 흐름에도 영국 재정 악화 우려에 의한 파운드 약세에 달러 낙폭 제한되었지만, 유로화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선제적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는 소식 등이 강세 재료로 작용한 형국
- 후반 들어, 미 민간 고용이 부진한 결과를 보인 가운데, 대내적 2차 추경 여파의 되돌림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 후, 주 후반, 재차 강세 전환 마감



엔화 동향

- 초반,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며 엔화는 소폭 강세 출발. 이어 일본 경제지표들이 다소 건조한 결과를 나타낸 가운데 대외적 달러인덱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금리 인하 압박 속 미 국내금리 하락과 맞물려 약세 보임에 따라 강세 지속한 형국
- 중반 들어, 미 노동부 발표 구인구직 보고서 상 증가세를 보인 구인 건수 지표 및 제조업 PMI의 시장 예상 상회 등 달러 강세 영향 속 일본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압박 등으로 엔화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일본 경제가 6월 서비스 관련 지표 호조를 반영, 완만한 확장세를 보였지만, 미국과 무역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유예 시한 이전 합의 불발 시 일본 경기가 하향 압력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 등으로 약세 지속 후, 주 후반, 일본 5월 가계 실질 지출이 전년 대비로 4.7% 증가하며 내수 중심 경기회복세 영향 등을 반영하며 강세 전환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786	1.1806	1.1756	1.1774
			0.0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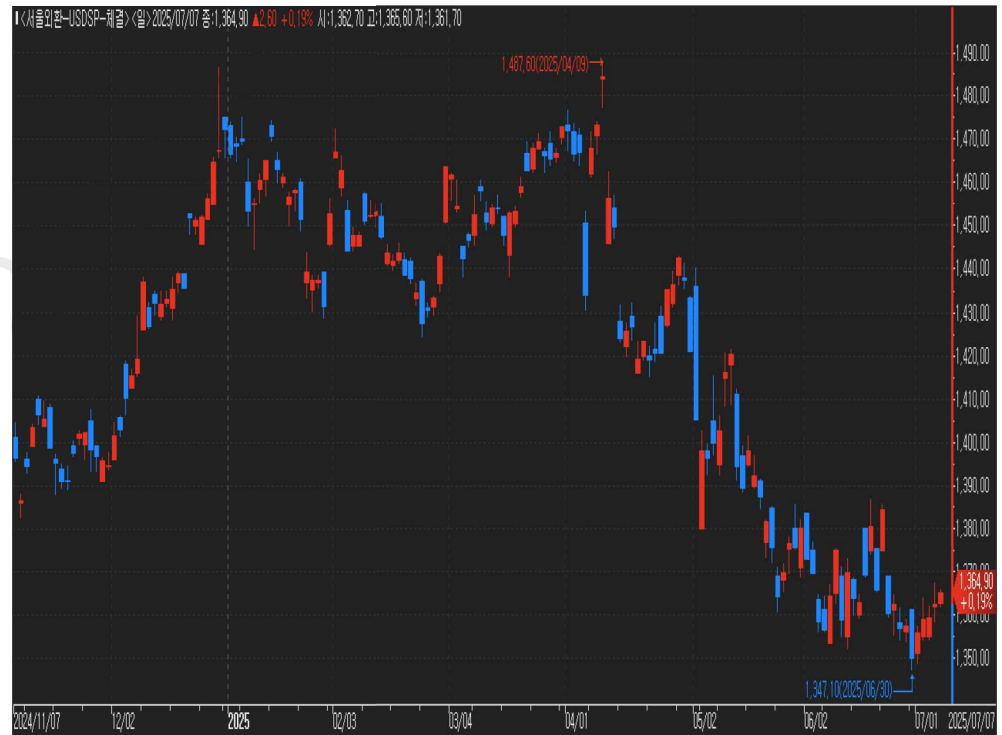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3.0	144.9	143.3	144.4	-0.16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6/30~7/4)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국내 광공업생산이 전월 대비 2.9% 감소,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곧 있을 30년물 국고채 입찰에 대한 매도 헤지 움직임 등으로 장기 구간 중심 국고채 금리 상승. 이어, 베네통 미 재무장관의 장기물 관련 언급으로 미 국채 시장 커브 플레트닝에 따른 영향 반영 속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 확대에 장기 구간 중심으로 하락 전환 시현
- 중반 들어, 한은 총재 ECB 중앙은행 포럼에서의 주택가격 위험 등 금융 안정 위험 중시 발언이 매파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2차 추경안이 증액될 것이라는 시각이 불거지면서 국고채 시장 약세 압력 속 금리 상승
- 후반 들어, 대내적 추경예산 증액 우려에 따른 국고채 시장 약세를 일부 되돌린 가운데, 주 후반, 미국 6월 고용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여전히 타이트한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 속,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동조화 양상 보인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 등으로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최근 코스피 급등 주도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의 4거래일 연속 순매도 영향에도 기관과 개인 순매수 확대에 상승 흐름 출발. 이어 6월 국내 수출 호조 등이 긍정적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추세 이어졌지만, 실적 확인에 대한 심리 강화 등이 상승세 제한한 국면
- 중반, 코스피는 미국 관세 협상 관련한 트럼프의 잇단 강경 발언과 미 증시 혼조세 등을 반영, 그간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니즈 분출 속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간밤, 미국과 베트남 관세 합의 소식, 대내적 상법 개정안 통과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며 3,110대 안착 후, 주 후반, 미 고용지표 호조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국면 보인 가운데, 차주 미국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전일 상승의 배 가까운 하락폭 나타내며 마감